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 I : 재스민혁명 국가들과 북한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대 성*

요 약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지역의 왕정과 독재체제 국가들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야당, 언론 등을 탄압하였고, 특권계층에 집중된 권력은 부정부패를 양산하였다. 다음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국가수입 대부분은 왕실과 독재자에게 귀속되었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유가하락과 2000년대 생필품 가격 상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 국가들의 인터넷 사용자가 평균 4,863% 증가하였고,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증대도 국가차원의 정보 통제를 어렵게 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재스민혁명이 발생 국가들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 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Scenario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 Comparing North Korea with countries of Jasmine Revolution

Lee, Dae Sung*

ABSTRACT

The Jasmine Revolution started from Tunisia in January 2011 has brought many changes into countries in North Africa and Middle East. We need to study the causes of the revolution. First, the kings and dictators in those countries oppressed the opposition parties and the media aiming for long-term seizure of power. The power concentrated on specific people produced illegalities and corruption. Secondly, most of the national income of those countries belonged to kings and dictators producing problems during the distribution of the income. Especially, with the decrease of oil price in 1990s and the increase of the price of daily necessities in 2000s people lost their credits on their governments.

Lastly, the number of people in those countries using the Internet has increased by 4,863% from 2000 to 2010. The expansion of social network services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was one of factors that made the information control by those countries difficult. We should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between those countries and North Korea.

It shouldn't be just a simple comparison or analysis. It should provide basic data for objective and quantified index development in relation to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Key Words: Jasmine Revolution, North Korea, Sudden Change, Dictator, Social Network Service

접수일(2017년 03월 08일), 게재확정일(2017년 3월 26일)

* 동의대학교 / 경찰행정학과

1. 문제의 제기

북아프리카 튀니지(Tunisia) 남동부도시 시디부지드(Sidi Bouzid)에서 과일노점상을 하던 20대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Muhammad Bouazizi)는 경찰의 부당한 단속에 항의하기 위하여 분신을 시도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0년 12월 18일 튀니지에서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시작되었는데, 이를 재스민혁명(Jasmine Revolution)¹⁾이라고 한다.

재스민혁명이 시작된 튀니지는 2011년 1월 14일 24년간 독재정권을 구축한 벤 알리(Zine El Abidine Ben Ali)를 축출하였다. 이집트도 2011년 2월 11일 30년간 장기 집권한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Muhammad Hosni Said Mubarak)가 사임하게 되었고, 2012년 6월에는 반정부 시위대 학살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혁명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쿠데타가 아닌 민중봉기를 통하여 장기 독재정권을 몰락시킨 첫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알제리, 예멘, 요르단, 시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2].

현재 국제사회에서 1당에 의한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쿠바와 북한만이 존재하고 있다.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Fidel Alejandro Castro Ruz)는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 Ruz)에게 권력을 승계하였고, 국제사회의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서방국가와도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쿠바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노동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

및 중장거리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개발하여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스민혁명의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재스민혁명 국가들과 북한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재스민혁명의 발생원인

2.1. 정치적 측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지역, 아프리카와 유럽지역의 가교(架橋) 역할을 하고 있고, 종교적으로 수니파와 시아파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구성원도 민족공동체보다는 부족공동체 의식이 발달하여 다양한 정체성이 혼재하고 있다.

<표 1> 2010년 민주화지수 순위[3]

국 가	점 수	순 위 (167개국)
사우디	1.84	160
리비아	1.94	158
이란	1.94	158
시리아	2.31	152
UAE	2.52	148
예멘	2.64	146
튀니지	2.79	144
오만	2.86	143
이집트	3.07	138
카타르	3.09	137
알제리	3.44	125
바레인	3.49	122
요르단	3.74	117
모로코	3.79	116
쿠웨이트	3.88	114
이라크	4.00	111
레바논	5.82	86

또한 이 지역은 공통적으로 독재에 의한 철권통치와 장기집권이 정당화되어 자유민주주의의 억압, 인권의 유린, 심각한 권력형 부조리의 발생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욱 고조되었다.

1)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이슬람국가들은 '재스민혁명'보다는 '시디부지드의 반란(Sidi Bouzid Revolution)'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였다. 왜냐하면 '재스민'의 꽃말은 '순결'인데, 20대 청년의 분신으로 촉발된 피와 공포, 그리고 죽음이 수반된 혁명을 상징하기에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1].

<표 2> 2010년 부패인식지수[4]

국 가	점 수	순 위 (178개국)
이라크	1.5	175
예멘	2.2	146
리비아	2.2	146
이란	2.2	146
시리아	2.5	127
레바논	2.5	127
알제리	2.9	105
이집트	3.1	98
모로코	3.4	85
튀니지	4.3	59
쿠웨이트	4.5	54
사우디	4.7	50
요르단	4.7	50
바레인	4.9	48
오만	5.3	41
UAE	6.3	28
카타르	7.7	19

이러한 왕정과 독재체제는 정치적 정적, 야당, 언론 등의 탄압을 통하여 그 권력을 연장하였고, 소수계층에 집중된 권력은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민주화지수와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연쇄적인 반정부시위를 가져왔고, 장기독재정권을 축출하는 계기가 되었다[5].

2.2. 경제적 측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산유국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석유나 관광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왕실과 독재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었고, 일반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 없이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유가가 하락하였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사회적 혜택이 제약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0년 초반부터 밀, 육류 등의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증가하였다.

<표 3> 2010년 국가별 1인당 GDP[6]

국 가	GDP(달러)
예멘	1,231
수단	1,643
이라크	2,626
이집트	2,771
모로코	2,868
튀니지	4,160
요르단	4,435
알제리	4,478
이란	4,484
리비아	12,062
사우디	16,641
바레인	19,641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국가들은 OECD국가와 비교하여 1인당 GDP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표 4> 2010년 국가별 실업률[7]

국 가	실업률 (%)
튀니지	14.2
이집트	9.4
리비아	20.7
예멘	15.0
바레인	17.0
알제리	27.3
요르단	14.0
이란	10.4
이라크	17.5
수단	18.7
모로코	9.4
사우디	5.0

또한 장기화된 저성장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젊은 세대에게 극도의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8].

2.3. 사회적 측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의 인터넷 사용자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4,863% 증가하였다.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증대도 국가차원의 정보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5> 2000-2010년 인터넷 사용자 증가율[9]

국 가	증가율 (%)
사우디	4,800
튀니지	3,500
모로코	13,113
시리아	13,017
이란	13,180
알제리	9,300
이집트	4,375
에멘	2,700
이라크	2,500
바레인	1,523
카타르	1,353
요르단	1,268
오만	1,274
UAE	414
쿠웨이트	633

특히 국민들은 SNS를 활용하여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시위장소, 일정, 지침 등을 전파하여 시위 세력을 조직화하였다. 시민세력에 의해 재스민혁명이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는 모바일 서비스와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였다.

그러나 군과 경찰이 민주화 세력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장면이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여과 없이 인접국가와 전(全)세계에 전파되면서 그 파급력을 더욱 커졌다[10].

3. 북한의 시민혁명 발생 변수

3.1. 정치적 측면

재스민혁명으로 기존체제가 붕괴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의 국가들은 최소 20년에서 최대 40년 가까운 독재체제를 유지하였다. 또한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과 경찰에 의한 억압통치를 하였는데,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 세습체제와 1인 수령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군사우선주의인 선군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1].

3.2. 경제적 측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은 국가 수입의 대부분이 특정계층에게 집중되어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부(富)의 재분배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지역 국가들과 북한의 경제체제는 유사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은 국가계획위원회라는 계획기구를 통하여 사회주의 소유체도를 확립하였다. 이 체도의 핵심은 국가와 협동단체가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국가나 집단이 소유한 후에, 이를 인민에게 공평하게 공동 분배하자는 것을 의미한다[12].

이는 표면적으로 경제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성분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출신과 사회성분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구분된 3계층 51개 부류에 따라 기본권과 생존권 등을 보장하거나 박탈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소위 “백두혈통” 또는 “빨치산혈통” 등과 같은 특권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다양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13]. 이는 모든 인민은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주의 이념과도 맞지 않는다.

3.3. 사회적 측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의 인터넷 보급과 사용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률은 재스민혁명이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이용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컴퓨터 개발을 시작하여 1974년에 1세대와 2세대 컴퓨터를 자체 개발하였고, 1975년부터 1982년까지 IT

강국 추진정책을 통하여 3세대 컴퓨터 개발에 성공하였다. 특히 중국 컴퓨터회사와 합작하여 공장을 세우고, 2002년 9월부터 펜티엄-IV급을 조립·생산하고 있다[14].

현재 북한의 컴퓨터 보급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IT연구자들에 의하면, 13~15만여 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200명당 1대 정도로 보급되었다는 추론을 하고 있다[15]. 다음으로, 휴대폰의 경우에는 1998년 7월 나진·선봉지역에 태국 회사와 북한 조선체신회사가 합작한 동북아전신전화회사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2004년 4월 22일 평안북도 용천역 폭발사건 이후, 모든 개인휴대전화에 대한 사용금지령을 내렸다[15]. 그러다가 2008년 12월 15일 이집트 통신회사를 통해 3세대(3G)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하였다[16].

4. 재스민혁명 국가들과 북한에 대한 비교 검토

재스민혁명 국가들과 북한을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성이 있다. 첫째, 재스민혁명 국가들과 북한은 모두 독재국가이고, 1인 지배체제이거나 왕정체제이며, 독재와 철권통치를 위하여 정적제거, 시위탄압, 언론통제 등을 강화하였다. 둘째, 재스민혁명 국가들은 소수의 씨족 또는 부족연맹이 특권층을 형성하였고, 북한은 핵심계층 25%가 특권층을 형성하여 권력을 독점하였다. 셋째, 재스민혁명 국가들과 북한은 장기집권과 특권층의 권력독점으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민주화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첫째, 재스민혁명 국가들 중에서 왕정 국가체제를 제외하고, 1인 독재지배체제를 유지하던 국가들 중에서 북한처럼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한 국가는 없다. 둘째, 재스민혁명 국가들 중에서 자신의 우상화에 성공한 독재자는 있었지만, 북한처럼 3대 모두를 신격화한 국가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성이

있다. 첫째, 재스민혁명 국가들과 북한은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국가에 귀속시켰고, 국민들에게는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국가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였다. 둘째, 재스민혁명 국가들과 북한의 1인당 GDP는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만, 다음과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첫째, 재스민혁명 국가들은 1990년대 유가하락과 2000년대 초반의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를 계기로 재스민혁명이라는 민중봉기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이것이 민중봉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둘째, 재스민혁명 국가들의 국가실업률은 보통 9%에서 27%를 유지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나 배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어, 장마당 등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다. 첫째, 재스민혁명 국가들과 북한의 인터넷 사용자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그 증가율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재스민혁명 국가들의 인터넷 사용자는 평균 4,863% 증가하였다. 여기서 2010년 6월 이집트의 인터넷 사용자 증가율은 4,375%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인터넷 사용자는 1천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2%이고, 휴대폰 이용자는 6천 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6.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0년 12월 북한의 인터넷 보급률은 12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3%이고, 휴대폰 이용자도 4만 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했다. 둘째, 재스민혁명 국가들의 인터넷과 휴대폰 관련 사업은 일반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확장되었지만, 북한의 인터넷과 휴대폰 관련 사업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재스민혁명 국가들의 인터넷과 휴대폰 이용자는 전(全)세계 인터넷과 비교적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스민혁명과 관련된 사건·사고 동영상 등을 유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인터넷은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5. 시사점 및 결론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갖게 된다. 우선, 왜 북한은 재스민혁명과 같은 민중봉기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첫째, 재스민혁명 국가들과 북한은 1인에 의한 독재체제를 유지한 것은 유사하지만, 재스민혁명 국가들은 독재자를 우상화하였고, 북한은 신격화하여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의식화된 교육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둘째, 재스민혁명 국가들의 독재자는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거나 언론을 통제한 것이 독재자 개인을 위해 한 행위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신격화된 독재자에 대한 비난·비판 자체를 국민들이 생각할 수 없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세뇌(洗腦)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셋째, 재스민혁명 국가들의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높았다. 이로 인하여 재스민혁명 국가들의 국민들은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북한은 그 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민중 봉기와 같은 시민혁명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하는 판단을 해본다.

참고문헌

[1]이재원, “튀니지 재스민혁명의 역사적 기원과 의의”, 서양사론, 113: 126, 2012.
 [2]송경근, “중동의 역사와 민주화 혁명”, 철학과 현실, 89: 68-69, 2011.
 [3]http://www.economist.com; 2017. 1. 5.
 [4]http://www.transparency.org; 2017. 1. 5.
 [5]유병규 · 최성근 · 김천구 · 임희정, “재스민혁명의 확산과 파급영향”, 경제주평, 435: 2, 2011.
 [6]https://data.oecd.org; 2017. 1. 5.

[7]https://www.imf.org; 2017. 1. 5.
 [8]최영철, “중동의 재스민혁명: 튀니지와 이집트 사례”, 철학과현실, 89: 10-11, 2011.
 [9]http://www.internetworldstats.com; 2017. 1. 5.
 [10]Muzammil M., Hussain, “The Role of Digital Media”, *Journal of Democracy* 22(3): 35-48, 2011.
 [11]이대성,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분석과 향후전망: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집권기를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5(1): 127-142, 2012.
 [12]신현기 외,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2013.
 [13]통일연구원,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통일연구원, 2009.
 [14]http://www.chosun.com; 2003. 3. 15.
 [15]박문우, “북한이탈주민 정보화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북한의 정보화 현황과 시민혁명 혁명 가능성에 대한 고찰”, 문화예술콘텐츠, 6: 139-147, 2010.
 [16]http://www.rfa.org/korean; 2011. 5. 19.

[저자소개]



이 대 성 (Lee, Dae Sung)
 1997년 동국대학교 법학사
 2000년 동국대학교 법학석사
 2004년 동국대학교 형사학박사
 現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email : dorian3145@daum.net